

포털,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네이버·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적 표현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KISO는 특정 대상이나 소수를 배제하는 식의 차별적 표현이 사회갈등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KISO는 회원사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표현을 우선 검토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별과 관련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포털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가 마련한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학사전 서비스 내 표제어 등이 특정 집단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이용자 주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KISO는 지난해 8월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언어생활 보호 △인격 존중과 동등 대우 △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존중과 저작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는 국어사전 뜻풀이에서 ‘낮잡는 뜻으로’ 풀이되는 표제어 가운데 고빈도로 사용되는 ‘장애’와 ‘인종·출신국가’ 관련 차별표현을 우선 검토하고 이용자 주의 표시를 적용한다.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 양코배기, 검둥이, 튀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KISO는 이 밖에 지역·종교·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적인 표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창근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 위원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이용자 인식과 언어 사용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어학사전 내 일부 표현이 특정 집단에 차별로 인식될 수 있어 이용자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사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되 이용자의 건강한 사전 이용을 돕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에는 법학 교수, 국어학자, 변호사, 교육전문가,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

[붙임1]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https://www.kiso.or.kr/정보센터/kiso-정책/어학사전-서비스-정책/차별표현-바로알기-캠페인>

#차별표현_바로알기_캠페인

KISO가 어학사전 속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리고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학사전의 특성상 그 표제어와 용례 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언어 사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어 사용 환경과 이용자 인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부 표현의 경우 이용자에게 차별·비하적인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KISO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비하 표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학사전 속 표현이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 특정 집단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붙임2]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https://www.kiso.or.kr/정보센터/kiso-정책/어학사전-서비스-정책/>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어학사전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학사전 서비스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전 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이용자의 언어생활 보호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이용자가 사전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인격 존중과 동등 대우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격권과 평등권을 존중하여 사전의 표현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존중과 저작권 보호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사전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사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전 편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